

세계 각국 문화와 예술 이끄는 핵심 인사 15인, 한국 찾다

- 5월~11월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위한 해외 주요 인사 초청’ 프로그램 진행
- 이집트 국립오페라하우스부터 미국 스미스소니언재단 관계자까지 15개국 인사들과 문화예술 국제교류 확대와 미래사업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15개국 문화예술 분야 주요 인사 15명을 차례로 한국으로 초청해 문화예술 분야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미래사업을 논의한다.

그동안 세계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200명 이상 방한 초청,
해외 박물관 한국 특별전 개최, 현대무용 합동 작품 공연 등 추진

문체부는 2009년에 시작해 올해 16회를 맞이한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위한 해외 주요 인사 초청(K-Fellowship)’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각국의 문화예술 현장 관련 기관의 지도자급 인사 200명 이상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 문화예술, 관광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기관과 단체,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협업 사업을 발굴해왔다.

그 결과, 싱가포르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는 지난 2022년 한국을 방문한 이후 23년과 24년, 에스플러네이드 공연장 연례 음악축제에 한국 음악공연단과 전통소리팀을 초청했고, 캐나다 하버프론트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올해 한-캐나다 현대무용 합동 작품 순회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튀르키예와 이집트를 시작으로, 프랑스, 미국, 필리핀 인사 등 방한

올해는 각국 재외 한국문화원들의 추천을 거쳐, ▲프랑스 국립기메동양 박물관의 베트르랑 아르노(Bertrand Arnaud) 수석 학예연구원, ▲미국 스미스소니언재단의 아비바 로젠탈(Aviva Rosenthal) 국제협력본부장,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의 빅토리노 마파 마날로(Victorino Mapa Manalo) 위원장 등이 한국을 찾는다.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하는 주요 인사는 2018년에 신설된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예술국의 에르칸 타르한(Erkan Tarhan) 부국장이다. 5월 26일에 입국하며, 방문 기간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과 제도의 경험을 공유받는다. 또한 에스엠(SM)타운과 ‘서울재즈페스티벌’, 한국방송공사(KBS) 등 한국 대중문화와 미디어 기술의 발전도 둘러볼 예정이다.

아프리카 지역 공연예술과 미술 분야의 정상급 인사도 온다. 이집트 국립오페라하우스의 라미아 사이드 마흐무드(Lamia Sayed Mahmoud) 관장은 5월 27일에, 나이지리아 니케갤러리의 오쿤다예 오예니케 모니카(Okundaye Oyenike Monica) 관장은 8월에 방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6월에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전후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의 현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중장기 국제교류 전략과 연계, 후속 협업 뒷받침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국제문화홍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던 해외 주요 인사 초청사업도 올해부터는 문체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초청 인사 선정과 방한 일정의 구성을 중장기 국제교류 전략과 연계하고, 방한 후 귀국 이후에도 재외 한국문화원과의 후속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계획이다.

* 문체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문체부 본부 조직으로 편입하고,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와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업무를 이관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확대·개편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해외 주요 인사 초청’ 프로그램은 각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과 이해를 높이는 디딤돌 정책이다.”라며, “이를 통해 문체부의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재외 한국문화원 활동을 더욱 확장하고, 해당 국가와 교류를 희망하는 민간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해외 주요 인사 초청자 명단

※ 주요 인사 방한 시 취재를 원하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	책임자	과장	인숙진 (044-203-3341)
		담당자	사무관	이명진 (044-203-3352)
주무관	류지연 (044-203-335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2024년 해외 주요 인사 초청자 명단

권역	국적	성명	소속 / 직위	분야	방한예정기간 (변동가능)
아태 (3)	인도네시아	안디카 퍼르마타 (Andhika Permata)	자카르타주정부 관광창의경제청* / 청장 *印尼 문화중심지 자카르타의 관광 및 문화산업 총괄	문화정책	9월
	필리핀	빅토리노 마파 마날로 (Victorino Mapa Manalo)	필리핀문화예술위원회* / 위원장 *문화부가 없는 필리핀에서 문화부 역할	문화예술	7월
	싱가포르	용슈홍* (Yong Shu Hoong)	Arts House Limited / 싱가포르 작가축제 위원장 *싱가포르 작가상 2차례 수상한 국민시인	문학·출판	9월
유럽 (7)	튀르키예	에르칸 타르한* (Erkan Tarhan)	문화관광부 / 예술부국장 *국영방송 기자/아나운서 출신, 케이팝 애호가	문화정책	5월
	벨기에	슬라그물더 크리스토프 (Slagmuylder Christophe)	보자르(BOZAR) 아트센터* / CEO 겸 예술감독 *벨기에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	6월
	네덜란드	트릴체 나바레트 에르난데스* (Trilce Navarrete Hernandez)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내 국제정보과학위원회(CIDOC) / 위원장 *국제적 명성의 디지털유산 학계 전문가	박물관	8월
	프랑스	베르트랑 아르노 (Bertrand Arnaud)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 / 고대 중국 및 한국관 수석 학예연구관 *유럽 내 최고 규모, 최다 아시아예술 소장품 보유 박물관	박물관	9월
	독일	바바라 레비치 (Barbara Lebitsch)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 예술운영감독 *독일을 대표하는 현대식 콘서트홀, 함부르크의 랜드마크	문화예술	10월
	스웨덴	오사 베리만 (Aasa Bergman)	스웨덴 예술위원회 / 알마상* 총괄책임자 *아동문학상의 최고봉 (2020년 백희나 작가 한국인 최초 수상)	문학·출판	11월
	카자흐스탄	갈림 아흐메디아로프* (Galim Akhmedyarov)	아스타나 국립 오페라 발레극장 / 극장장 *각종 국가상을 수상한 국민음악가	문화예술	11월
미주 (3)	멕시코	페를라 라바르테 (Perla Labarthe Alvarez)	프리다 칼로 미술관* / 관장 *한해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멕시코 핵심 미술관	미술·전시	6월
	미국	아비바 로젠탈 (Aviva Rosenthal)	스미스소니언 재단* / 국제협력본부 국장 *문체부-스미스소니언박물관 2023년 MOU 체결	박물관	7월
	캐나다	장 프랑스와 벨리슬* (Jean-Framcois Belisle)	캐나다국립미술관 / 관장 *캐나다,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100개 이상의 미술 전시 및 프로젝트 운영한 국제분야 전문가	미술·전시	10월
아중동 (2)	이집트	라미아 사이드 마흐무드 (Lamia Sayed Mahmoud)	이집트 국립오페라하우스* / 관장 *이집트 전역의 오페라하우스 및 국립극장 관리하는 중심기관	공연	5월
	나이지리아	오쿤다예 오예니케 모니카 (Okundaye Oyenike Monica)	니케 갤러리(Nike Art Gallery)* / 관장 *서아프리카 최대 규모 갤러리	미술·전시	8월